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질공원 설계 원칙 수립 연구

- 제주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

조선* · 정옥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최근 관광의 패러다임이 대중 관광, 단체 관광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대안 관광, 생태 관광 등 새로운 관광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윤경호와 김남조, 2015). 20세기 후반부터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질을 지구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다양한 지질작용과 생물과 인류의 진화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손영관, 2014).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은 지질, 경관에 집중하여 지질탐방로, 조망점, 가이드 투어, 지질 체험 활동, 방문객 교육 시설들을 통해 자연의 경관을 이해하고 즐기면서 지질경관, 지질 다양성, 지질 보존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다(Newsome and Dowling 2010). 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질학적 경관이나 그 장소를 말하며, 보존,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Geopark) 인증 제도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다(UNESCO, 2017). 2017년 10월 기준 세계지질공원은 총 35개국 127개의 지역이 인증되면서 지질공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도 지질 유산,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등장했다. 2012년에 제주 지질공원,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이 처음으로 인증되었고, 2017년 10월 기준 국가지질공원은 총 9개가 인증되었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질공원과 제주 국가지질공원을 살펴보면, 기존의 관광지로 개발되었던 곳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명소들은 일부 개선하여 재활용하거나, 새롭게 지정된 지질공원은 탐방 및 안내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국내 지질공원은 현재 여타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되어 지질을 이해하고, 즐기는 지질관광 활동이 일어나야 하는 지질공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질 관광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지질공원을 공간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지질공원의 지질관광 활동을 활성화하는 설계 원칙을 수립한다.

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제주도가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고,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인증되면서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명소 중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한라산을 제외하고, 9개 명소를 대상으로 지질공원의 지질관광 현황을 조사하고, 지질공원 설계 원칙을 수립한다.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 지질공원의 지질관광 현황 조사를 통해 제주 지질공원의 공간 설계 원칙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주 지질공원의 지질관광 현황은 현장 답사, 전문가 인터뷰, 방문객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제주 지질공원의 탐방 동선, 경로, 안내 시설 등 물리적 조성 현황이 얼마나 지질관광 활동을 수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주 지질공원에서 일어나는 지질관광 활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제주 지질공원이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마지막으로 제주 지질공원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탐방객의 지질관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 제주 지질공원의 지질관광 만족도를 조사한다.

현장 답사는 2017년 5월, 10월, 11월에 걸쳐 9곳의 지질공원 명소를 방문하여 지질경관 지점, 탐방 경로, 탐방로 환경, 안내판의 위치 및 내용 등을 조사했다. 전문가 인터뷰는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질전문가 1인과 지질공원해설사 3인과 함께 2018년 2월 진행했다. 방문객 설문조사는 지질 명소 중 인지도가 높은 용머리해안과 대포 주상절리를 방문한 방문객 102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8일에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III.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현장 조사 결과

제주 지질공원의 현장 조사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제주 지질공원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관광지화 된 곳이 많아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과 탐방로를 주로 활용한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관리 주체들이 한 공원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어 탐방 시설의 형태와 배치가 체계가 없고 안내판의 내용이 반복되거나 서로 달라 인식과 내용 전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와 반해 관광지가 아닌 곳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질명소는 마을에서 사용한 일부 도로를 사용해 탐방로로 활용하고 있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고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 탐방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탐방 인프라의 구축과 안내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들은 지질공원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인적자원, 문화자원, 지질자원 등의 잠재력이 탐방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머리·산방산 지질공원 해설사 2인은 “현재 안내판이 각 자치도별 각각 따로 논다.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질공원 운영 관리 담당 지질전문가는 “현재 용머리해안의 경우는 물때를 맞추기 어려워 헛걸음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현재 지질공원에 남아 있는 지역문화나 역사를 지질공원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관리 주체와 개발 시기 등의 차이로 시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변수를 수용하지 못하는 단일한 탐방로 때문에 유동적인 안내 및 운영이 힘들고, 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 설문조사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객은 지질공원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상절리의 경우는 ‘알고 있다’에 59%가 답한 반면, 용머리 해안은 43.9%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아직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반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탐방 환경과 안내 시설에 대체로 만족(탐방환경: 86.2%, 안내시설: 58.7%)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탐방 환경에 불만족한 15명(14.7%) 중 ‘지질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없음’에 5명(33.3%)이 답했고, 안내 시설에 대해 불만족한 43명(42.1%) 중 ‘안내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에 11명(25.6%)이 답했다. 전시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9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탐방로 이외에 지질학적 의미가 있고, 가볼 만한 곳에 대해서 41.1%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설치된 탐방로 이외의 경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으면 탐방할 의향이 있다고 51명(50%)이 답했다. 이를 통해 지질공원과 지질환경에 대한 방문객의 관심을 확인하였고, 지질공원 설계를 위해 근접 탐방로, 다양한 탐방로의 설치와 안내판의 재배치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4. 지질공원 설계 원칙 수립

위의 제주 지질공원 조사 결과를 통해 지질공원 공간 설계를 위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하고 연속적인 경로를 제안한다. 둘째, 지질관광을 위한 최소한의 탐방 시설을 제시한다. 셋째, 안내 시설의 배치, 내용, 형태를 통일하고 체계를 설정한다. 넷째, 근접관찰이 가능한 탐방로를 제공한다. 다섯째, 해당 지역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다. 여섯째, 자연·지질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재료와 형태로 구성한다.

참고문헌

1. 손영관(2014). 우리나라의 지질유산과 보존, 활용 그리고 관리방안. 지질학회지 50(1): 1-2.
2. 윤경호, 김남조(2015). 국가지질공원 지정으로 본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의 의미와 역할. 관광연구논총 27(2): 53-82.
3. Newsome, D. and R. K. Dowling(2010)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4. UNESCO(2017) <http://www.unesco.org/>



그림 1 제주 지질공원의 현장 조사 결과

Legend: ● 지정 이전 관광지화 ● 지정 이후 관광지화